

칼럼

장기채 주필



덕담(德談)이 그리워지는 때다

구입에 몰아타친 한파 때만 해도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앞섰다.

그 때서웠던 한파의 겨울도 어느덧 피리를 감추기 시작한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도 한 달 가까이 다가온다.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든다. 새해 아침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설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속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에는 새해가 되면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덕담을 주고받는 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

그리고 흐뭇한 풍속이 아닐 수 없다.

'새해는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성취 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주고받는다.

물론 조그마한 형식적이고 의례적 이란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담을 주고받을 때의 기분은 나쁘지가 않다. 서로의 덕담은 우

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도 남는다. 덕담은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시이며 그것은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지(知)와 덕(德)을 쌓는 지름길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더해 줄 것이다. 덕담은 그 속성상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윤희유 같은 것이기도 하다.

덕담은 덕담을 낳게 마련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덕담처럼 되도록 노력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될 것인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진실에서 우리나라오는 덕담의 자세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의 기분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아니, 새해 덕담을 하면서도 우리는 덕담보다는 험담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남을

칭찬하기 보다는 흉보기를 즐겨하는 것은 아닌가. 장점을 찾기보다

는 단점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은가.

수고는 '남'이 하고 영광은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올해는 험담은 버리고 덕담만 해보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든다. 설날 아침에 맛보는 떡국은 지금이 최고기나 닭고기라도 끓여

지만 옛날에는 꿩고기로 많이 하였다. 설날에 흰 떡국을 끓여 먹

는 것은 고대의 태양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동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날에 마시는 술은 데우지 않고 찬 술을 마신다. 경도 잡지(京都雜記)에 보면 '술을 데우지 않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이 연상하는 설날의 이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매년 여유롭고 정겨운 것이다.

종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웃어른들의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아이들의 재롱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해 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설날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설날이 바쁘고 귀찮기까지 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 고향을 찾는다. 숲 가쁜 일상 속에서 어렵게 귀성길에 올라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쫓기듯이 후딱 차례를 지낸 후 다시 서둘러 귀성길에 오르는 게 요즘의 세태 아닌 세태가 되어버렸다.

수많은 현대의 가정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설 명절을 마무리하기 일쑤다. 언제나 즐겁고 풍요로운 출만 앞섰던 우리의 설날 모습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한 원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이에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이는 치솟는 물가, 밀리는 임금체불 늘어만 가는 세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그리고 고령화사태에 발맞추지 못하는 노인복지정책 등이다. 올 설에는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신발도 사드리자 가족에 대한 사랑도 머루지 말자.

올 설날이 막 지나면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다. 이럴 때 국민에게 감동 주는 청와대발 덕담이 온 나라에 가득 차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

社說

일·육아 병행 분위기 되어야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니 안타깝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한 전국 만20~49세 400명(남성 200명,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4일~12월 7일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육구'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9%였지만 여성은 81.0%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을 첫순으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담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무직으로 있는 비율도 여성 12.8%로 남성(2.0%)보다 높았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32.8%), '아

이를 돌봐줄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서'(28.0%)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재정적 어려움'(31.0%)을 들었으며, 이어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19.5%), '진급 누락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10.3%)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2.3%는 '회사의 복직요구',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중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자녀와의 관계 증진'(36.5%), '여유 있는 육아'(26.5%) 등을, 힘들었던 점으로는 '육체적 피로'(32.8%), '재정적 어려움'(21.8%), '정신적 피로'(12.8%) 등을 각각 꼽았다.

정부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도록 하는데 힘써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矩步引領

모날 구  
결음 보  
끌 인  
거느릴 령

矩步引領

▷ 뜻: 걸음을 바로 걷고 따라서 얼굴도 바로  
느니 위위가 당당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생명의 문 비상구 상시개방해야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일상생활 전반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크고 작은 재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재난을 잉태한다.

이렇게 발생한 재난은 개인의 희생이나 한 가정의 슬픔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때로는 그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

구성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서 따라 대형화·밀집화 되어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3월 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주에게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관리하고 피난 방화시설도 적정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비상구나 피난통로에 물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 한 범법행위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피난경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실마리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고, 모니터가 설치된 곳에서는 피난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필자는 저녁모임에 참석하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는 습관이 생겼다.

음식점 등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는 내부구조가 복잡해 출자리로 이어진다면 비상시에 탈출구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구에 다가가 문을 열어 보고 방향을 기억해 두곤 한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우리 모두가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안전이 확보된 업소를 골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3가지 기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을 평소 에 미리 익혀 두는 것도 유비무환

의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이윤 추구하고 함께 작은 배려가 다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점검'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는 지난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생명의 문 '비상구'를 언제나 사용가능토록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인위적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정착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권동주 / 무안소방서 민원주임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y Republic'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roles?). It promotes empathy and social harmony. Includes the logo of the Korea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공단).